

〈일반논문〉

蔣介石과 李承晩* - 세 차례 회동의 유래와 의의

김 영 신 **

〈목차〉

- I. 머리말
- II. 上海 : 이승만의 정치자금
- III. 鎮海 : 좌절된 '반공연맹' 결성 시도
- IV. 臺北 : 아시아민족반공연맹(APACL) 조직 촉진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현대 중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물인 장개석과 이승만이 가졌던 세 차례 만남의 유래와 각 회동이 갖는 의의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세 차례 만남을 단순히 개인차원의 '교유' 정도로 간주하기에는, 두 사람의 정치적 위치가 특별하였다.

두 사람은 上海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기는 하였지만, 장기간 미국에서 활동했던 관계로 이승만은 장개석과 면식이 없었다. 이때는 이승만이 아직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이었던지라, 첫 번째 만남에서 정치 현안이 깊이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다. 첫 번째 만남을 전후하여 이승만이 즐기차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2079082).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HK+연구교수

게 ‘활동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실제 장개석으로부터 지원이 있었다.

鎮海에서 가진 두 번째 만남은 당시 동북아의 정세변화가 반영된 결과였고, 장개석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만남이 성사되었다. 국공내전이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던 당시, 장개석은 공산세력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서태평양 연안 반공 국가의 연맹체 조직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필리핀을 방문하여 키리노대통령과 합작을 논의하였고, 한국과의 합작을 추진하기 위해 이승만과의 회동을 바랐던 것이다. 진해회담의 결과 장개석과 이승만은 반공연맹체 조직에 뜻을 같이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합성명을 발표하였다. 회담기간 장개석은 군사합작과 경제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그의 제안은 1950년대 이후 양국 간 활발한 교류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한국전쟁 휴전 몇 달 뒤 臺北에서 세 번째 회동이 있었다. 공히 공산세력의 침략을 당하였던 두 나라 영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반공국가들이 참여하는 구역성 반공연맹체 조직에 완전히 뜻을 같이하였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두 사람은 연맹체 조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다음해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이 정식 출범하였다. 냉전 초기 아시아·태평양지역 각국이 참여하는 반공연맹체 출범을 축성하였다는 점에서 세 번째 회동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하겠다.

□ 주제어

장개석, 이승만, 한국전쟁, 반공포로, 군사합작, 태평양연맹

I. 머리말

蔣介石만큼 우리 현대사에 깊은 영향을 미친 인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장개석은 여러 방면에서 중국 안에서 펼쳐진 한국독립운동에 대해 동

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끝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정식 승인’하지는 않아 한국현대사를 굴곡지게 하였다. 중국현대사의 중심인물이 장개석이라면, 한국현대사의 중심적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李承晩을 지목하는 것은 결코 과장된 평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 중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물인 장개석과 이승만은 세 차례 만남을 가졌다. 그 장소는 만남 당시의 동아시아 정치상황이 반영되어 중국대륙, 한국, 대만으로 각기 달랐다. 세 차례 만남 당시 두 사람의 신분도 차이가 있었다.

上海에서 이뤄진 첫 번째 만남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으로, 당시 장개석은 국민정부 주석으로 공식적인 중국의 영도자였다.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주도하며 미국 조야를 상대로 활동을 전개하다 귀국길에 중국에 들러 장개석을 만날 당시 이승만은 공식적인 정치적 지위를 갖지 못했다.

鎮海에서 두 사람의 두 번째 회동이 있었다. 당시 장개석은 총통의 자리에서 하야한 상태였으나 중국국민당 총재의 자리는 유지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정부 수립 후 첫 번째 대통령으로써 대한민국을 영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세 번째 만남은 臺北에서 이뤄졌다. 한국전쟁이 종식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뤄진 회동 당시 장개석은 중화민국 총통의 자리에 복귀한 상태였고, 이승만은 여전히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다. 이처럼 세 차례 회동의 장소와 회동 당시 두 사람의 신분에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세 차례 회동은 두 사람의 개인사와 양국관계, 나아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위치로 볼 때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개인적 교류에 그치지 않고, 당시 한중관계와 나아가 냉전체제 진입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과 상응한 결정이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회동에 주목한 연구만 있을

뿐,¹⁾ 첫 번째와 세 번째 양자 회동의 유래와 결과가 갖는 의의 등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²⁾

장개석과 이승만의 세 차례 회동과 관련한 자료는 대부분 중국 측에서 생산된 것이다. 첫 번째 회동과 관련한 논의는 대만 국사관에 소장되어 있는 ‘蔣中正總統文物’ 중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장개석의 한국 방문과 관련한 자료는 蔣中正總統文物 중 『蔣總統訪韓』, 함께 방한했던 수행원의 회고록,³⁾ ‘國民黨總裁辦公室’의 공작보고가 일차적으로 참고할만한 자료들이다.⁴⁾ 대만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 소장 『中菲韓發起防共同盟案』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 또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세 번째 회동시 회의기록 등 중요 참고자료 역시 대만 국사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고는 상기 일차자료들을 기본으로 하고 더하여 해당시기 주한대사관과 중국외교부 간 왕래 외교문건, 출생부터 사망까지 장개석의 일생사적을 연대기로 정리한 『蔣中正先生年譜長編』,⁵⁾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⁶⁾ 초대 주한대사로 진해회의에 출석했던 邵毓麟의 회고록⁷⁾ 등 자료들을 교차 분석하여 장개석과 이승만 세 차례 만남의 유래, 의의와 성과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 1) 김영신, 「1949년 蔣介石 訪韓의 유래와 의의」, 『전북사학』 56호, 2019, 315-343쪽 ; 呂芳上, 「總裁의 ‘首腦外交’: 1949年蔣中正出訪菲韓」, 陳立文 主編, 『蔣中正與民國外交II』, 國立中正紀念堂管理處, 2013, 1-37쪽.
 - 2) 장개석과 이승만의 臺北 회담에 주목한 王恩美의 연구가 있다. 다만 이 글은 회담 당시 실무진(葉公超, 卞榮泰)의 사전 교섭에 주목하여 양국 영수의 의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王恩美,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의 주도권을 둘러싼 한국과 중화민국의 갈등과 대립(1953-1956)」, 『아세아연구』 제56권 3호, 2013, 155-194쪽.
 - 3) 張其昀, 『菲韓紀行』, 正中書局, 1949.
 - 4) 唐振楚 編, 『總裁辦公室工作紀要』, 中國國民黨編印, 1952.
 - 5) 呂芳上 主編, 『蔣中正先生年譜長編』, 國史館, 2015.
 - 6) 秦孝儀 總編纂,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財團法人中正文教基金會, 2002.
 - 7) 邵毓麟, 『使韓回憶錄』, 傳記文學出版社, 1980.

II. 上海 : 이승만의 정치자금

해방 초기 한국 내부의 가장 큰 정치적 이슈는 신탁통치반대운동(반탁운동)이었다. 1946년 12월 김구와 이승만은 대대적인 반탁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일치하고, 당시의 국내정치와 국제환경을 감안하여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김구는 국내의 역량을 결집해 반탁운동을 전개하기로 했고, 이승만은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당국과 직접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운동 진행의 순서는 이승만이 먼저 미국에서 계획을 실행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김구의 구상을 실천하기로 합의하였다.⁸⁾ 미국 내 활동이 성공적이지 못하자 이승만은 귀국을 준비하였다. 미국무성과 미군정의 방해로 귀국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승만은 장개석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이승만이 주미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방문의 뜻을 처음 전한 것은 1947년 1월이다.⁹⁾ “2월 상순 미국을 출발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길에 잠시 南京에 들르고자 한다”는 이승만의 뜻을 전달받은 장개석은, 2월 6일 주미대사 顧維鈞에게 “예방을 환영한다”¹⁰⁾는 뜻을 이승만에게 전하도록 하였다. 이승만의 방문을 앞두고 각 방면에서 이승만의 해방 전 미국에서의 활동상황과 인물평에 관한 보고가 연달았다. 보고는 대부분 이승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들을 담은 것이었다.

8) 「保密局呈蔣中正韓國獨立黨首領金九與李承晩政治謀略成功內情」, 1947.4.24,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蔣總統訪韓』(이하 『蔣總統訪韓』으로 약함), 國史館藏, 典藏號:002-020400-00034-115.

9) 「李承晩電蔣中正」, 1947.1, 『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097.

10) 「顧維鈞電蔣中正」, 1947.2.15, 蔣中正總統文物, 『特交文電-對韓菲越關係(2)』(이하 『對韓菲越關係(2)』로 약함), 國史館藏, 典藏號:002-090103-00010-091.

중일전쟁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何應欽은 1946년 6월 이후 유엔안보리 군사참모단 단장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장개석에게 “외고집이어서 미국인과 한국인들 모두 그다지 옹호하지 않고, 미국 군부도 지지할 의향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 너무 과도한 예우는 삼가는 것이 좋겠다”¹¹⁾는 뜻을 전하였다.

고유균도 “미국 당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주한미군을 공격하는가 하면,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등과 같은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원대한 식견이 부족한 탓이라고 꼽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그를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미국과 소련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길인지 주석(장개석)께서 잘 판단하시기 바란다”¹²⁾고 역시 이승만에 대해 부정적인 미국 방면의 여론을 전하였다.

4월 7일 이승만은 “출발 날짜가 연기되어 4월 11일 상해에 도착, 중국에 이틀간 머문 뒤 도쿄로 떠날 것”이니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접견의 기회를 달라는 요지의 전보를 장개석에게 보냈다.¹³⁾ 그러나 예정보다 앞당겨 4월 9일 上海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한 이승만은 4월 11일 남경에 도착하였다. 이승만의 訪中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김구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김구는 “이승만 박사가 남경을 방문하고자 하니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생각해 이 박사에게 아낌없는 원조와 지지 보내주시기를 청한다”¹⁴⁾는 전보를 두 차례 보내 이승만의 중국 방문이 성사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남경에 도착한 이승만을 마중한 이는 후일 초대 주한대사에 임명된 邵

11) 「何應欽電蔣中正」, 1947.3.31, 『對韓菲越關係(2)』, 典藏號:002-090103-00010-095.

12) 「顧維鈞電蔣中正」, 1947.4.2, 『對韓菲越關係(2)』, 典藏號:002-090103-00010-096.

13) 「李承晚電蔣中正」, 1947.4.7, 『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109.

14) 「金九電蔣中正」, 1947.2.22, 『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102;

「金九電蔣中正」, 1947.3, 『對韓菲越關係(2)』, 典藏號:002-090103-00010-094.

毓麟이었다. 이승만의 방중에 앞서 장개석에게 올린 보고에서 소육린은 이승만의 중국 방문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는 남한에 정부가 성립되기 전 중국의 양해와 지지를 얻기 위함이고, 둘째는 중국 영수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제고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¹⁵⁾ 부수적으로, 이승만은 중한 간 경제와 무역문제 등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단독으로 이승만과 장시간 대화를 나눈 소육린은 대화의 요점을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하여 장개석에게 보고하였다. 첫째 이승만은 총재(장개석)를 아시아의 민족 영수로 추앙하며 옹호하고 있다. 둘째, 김구와의 철저한 합작을 약속하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중·미 등 여러 나라가 한국의 통일을 위해 힘써주기를 청하였다. 셋째, 남한에 임시정부가 성립되면 이후 일체의 행정은 한인들이 주관할 것이나, 군정 방면의 실권은 여전히 미군이 비밀리에 행사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¹⁶⁾

4월 13일 오후 5시 장개석은 상해에서 이승만을 접견하였다. 남경이 아닌 상해에서 두 사람이 회동한 것은 까닭이 있었다. 청명절을 맞이하여 성묘 차 고향을 찾았던 장개석이 杭州를 거쳐 12일 상해에 도착했기 때문이었다.¹⁷⁾ 두 사람의 회동에서 현실 문제에 대해 특별한 대화가 오간 것은 아니었다.

이승만은 과거 중국 내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지지와 원조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시했고, 아울러 한국이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지지해 줄 것을 청하였다. 장개석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껏 도울 것을 약속하였다.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두 나라가 긴밀히 합작하여 공동노

15) 「呈供召見韓國李承晩之參考」, 1947.4.9, 『蔣總統訪韓』, 典藏號: 002-020400-00034-110.

16) 「俞濟時呈蔣中正」, 1947.4.9, 『蔣總統訪韓』, 典藏號: 002-020400-00034-110.

17) 呂芳上 主編,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八冊, 國史館, 2015, 645-648쪽.

력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당일 일기에 장개석은 “비록 연로하지만 정신은 충하며 행동거지에 기품이 있어 동시대 여타 한국 영수들과는 다른 모습”¹⁸⁾이라며 이승만에 대해 우호적인 감상을 기록해 두었다.

이승만과 의견을 나눈 외교부장 王世杰의 보고를 통해 한국문제와 관련하여 장개석과 이승만이 나눈 대화의 요지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볼 수 있다. 왕세걸은 이승만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것과 이승만과 미국이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개석이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을 진언했다.¹⁹⁾

이승만의 중국 방문은 ‘정치자금’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상해에서의 첫 번째 만남이 있기 대략 1년 전, 이승만은 주미대사 魏道明에게 지시하여 미국안전신탁공사(American Security and Trust Company)에 자신 명의로 20만 달러를 예치해줄 것을 청하는 전보를 보내었다.²⁰⁾ 이승만의 청구를 접수한 장개석은 3월 7일 국민당 비서장 吳鐵城에게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지시하였다. 오철성은 韓國駐華代表團과 협의 후 한국으로의 송금일이 열릴 때까지 여전히 주미중국대사관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결론났음을 보고했다.²¹⁾

20만 달러의 유래는 아래와 같다. 해방 직후 김구는 韓僑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法幣 3억 원을 제공해 달라고 중국당국에 요청하였다. 오철성을 통해 보고를 받은 장개석은 처음에는 김구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굴하지 않고 김구는 재차 “귀국 준비와 전시 일본군으로 끌려왔다 투항한 韓籍 청년들을 수습하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며 범페 5천만 원 지원을 요청하였다. 오철성은 “현재 한국에서는 각 정당의 활동이 활발하게

18) 『蔣中正先生年譜長編』 第八冊, 649쪽.

19) 「王世杰函蔣中正」, 1947.4.12, 『蔣總統訪韓』, 典藏號: 002-020400-00034-112.

20) 「李承晩電蔣中正」, 1946.2.15, 『蔣總統訪韓』, 典藏號: 002-020400-00034-088.

21) 「吳鐵城呈蔣中正」, 1946.3.11, 『蔣總統訪韓』, 典藏號: 002-020400-00034-091.

전개되고 있다. 重慶에서 활동하던 한국 요원들이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마땅히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며 김구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장개석에게 제출하였다.²²⁾

김구는 9월 26일 다시 장개석에게 편지를 보내 첫째, 미국방면의 동의(그 형식과 명의를 상관하지 않겠다)를 얻어 임시정부 동지들이 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 둘째, 미국정부와 협의하여 최소한 우리 임시정부를 비정식의 혁명적 과도정권으로 묵인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 셋째, 적군에 끌려온 韓籍 사병의 무장이 해제된 뒤 이들을 한국광복군에 넘겨주시기 바란다. 넷째, 현재 증경에 거주하고 있는 한교 수백 명이 신속히 귀국길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마지막으로, 법폐 3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²³⁾

10월 15일 오철성은 김구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장개석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청하였다. 그 세 번째 항목은 “귀국 시 필요한 여비와 귀국 초기 활동비용으로 법폐 5천만 원과 50만 달러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오철성은 ‘法幣 5천만 원과 美貨 20만 달러를 공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첨부하였다. 여기에 장개석이 ‘可’라고 결재하면서 환국을 앞둔 임시정부에 최종적으로 법폐 1억 원과 미화 20만 달러 제공이 결정되었다.²⁴⁾

장개석과 국민정부는 해방 후 한국에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유지되어 온 한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가 구성되기를 바랐고,²⁵⁾ 그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었다. 증경에서 활동하던 임시정부가 그 역할을 수행해

22) 「吳鐵城呈蔣中正」, 1945.9.21, 『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082.

23) 「金九函蔣中正」, 1945.9.26, 『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083.

24) 「吳鐵城呈蔣中正」, 1945.10.15, 『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084.

25) 배경한, 「종전 전후 시기 國民政府의 對韓政策」, 『중국근현대사연구』 제76집, 2017, 107쪽.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장개석의 입장에서 ‘활동을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는 김구의 요청을 끝까지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이에 장개석은 10월 20일 총 1억 원을 김구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우선 5천만 원을 재정부에서 지불하도록 지령하였다. 1945년 11월 30일자 장개석의 긴급명령에 따라 법폐 5천만 원과 20만 달러에 상당하는 4백만 원 등 총 5천 4백만 원이 12월 11일 중앙은행 업무국으로 이체되었다.²⁶⁾ 미군이 제공한 수송기 편으로 귀국한 김구는 미군정의 방침에 따라 달러를 가지고 귀국할 수 없었다. 이에 우선 주미중국대사관에서 보관해 두었다가 기회를 보아 한국으로 송금해줄 것을 요청했다.

20만 달러의 존재를 인지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이승만은 1946년말 주미중국대사관 참사로 있던 陳之邁를 통해 장개석에게 편지를 보내 재차 이 문제를 거론했다. 이승만은 당시 한국의 정치상황을 전하며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제출하였다. 첫 번째는 중국이 漢城에 대표를 상주시켜 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20만 달러를 자신의 명의로 예치해 달라는 것이었다.²⁷⁾ 20만 달러는 김구가 수령하여 활동비로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었기에 이승만의 재차 요구에 중국당국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1947년 1월 17일 장개석은 다시 오철성에게 이 문제의 그간 경과와 향후 처리방침에 대해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²⁸⁾

이 문제로 김구는 주화대표단 대표 박찬익을 국민당 비서처에 보내 상의하도록 하였고, 논의한 결과 이 돈은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여 잠시 주화대표단 명의로 중국은행에 예치해 두도록 하였다. 돈을 인출할 시에는 국민당 비서처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도 붙게 되었다. 박찬익은 이후

26) 「吳鐵城呈蔣中正」, 1945.9.21, 『蔣總統訪韓』, 典藏號: 002-020400-00034-082.

27) 「轉呈駐美大使館參事陳之邁函」, 1946.12.30, 『蔣總統訪韓』, 典藏號: 002-020400-00034-096.

28) 「陶希聖呈蔣中正」, 1946.12.30, 『蔣總統訪韓』, 典藏號: 002-020400-00034-095.

로도 여러 차례 국민당 비서처를 방문하여 돈을 수령할 방법을 문의했으나,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오철성은 이 돈은 애초 김구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니 김구의 별도 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이승만에게 지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을 올렸다.²⁹⁾

이승만이 귀국한 뒤인 1947년 6월 1일, 김구는 주한총영사 劉馭萬을 통해 10만 달러는 박찬익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만 달러는 당분간 중국은행에 예치해둘 것을 청하는 내용의 전보를 오철성에게 보내왔다. 이에 오철성은 중국은행에 1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공문을 보냈다.³⁰⁾ 임시정부 환국 시 지원을 약속했던 20만 달러 중 절반은 주인을 찾아간 셈이었다.

결국 20만 달러를 손에 넣지 못한 이승만은 귀국 후 장개석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1947년 10월 10일 이승만은 중국 방문 시의 환대에 감사함을 표시하며 “미국에서 선전활동을 적극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경비가 필요하다. 목하 우리가 겪고 있는 곤란의 대부분은 금전 문제에 있다. 다시 한 번 주석의 도움을 청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³¹⁾ 이 편지와 함께 이승만은 유엔 중국대표단에 지령하여 남한에 독립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비망록도 함께 제출하였다.

그해 12월 19일 외교부장 王世杰은 “이승만이 편지에서 언급한 경제적 지원 문제는 이미 오철성 비서장을 통해 미국으로 송금을 마쳤다. 이 돈은 유엔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마침 뉴욕에 머물고 있던 주한성총영사

29) 「報告奉撥韓國臨時政府美金二十萬元」, 1947.2.6, 『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095.

30) 「吳鐵城電蔣中正」, 1947.6.19, 『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119.

31) 「李承晩函蔣中正感謝接待正於南韓推行選舉運動及急需經費」, 1947.10.10, 『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130.

유어만에게 은밀하게 전달하였다”는 경과보고를 올렸다.³²⁾ 이승만은 바라던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액수와 용처에 관한 기록은 찾지 못했다.

III. 鎮海 : 좌절된 ‘반공연맹’ 결성 시도

1949년 여름, 중국 국공내전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다. 당시 중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장개석은 공산세력을 가장 증오했고, 공산세력의 확장에 큰 우려와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 공산세력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하던 그는 아시아 반공국가들이 동참하는 ‘연맹’ 결성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맹 결성에 가장 먼저 적극성을 보인 키리노(Elpidio Quirino) 필리핀대통령과 이승만을 우선적으로 손잡아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1949년 7월 10일과 11일, 장개석은 필리핀 하계수도 바기오(Bagio)에서 키리노와 두 차례 회담을 가졌다.³³⁾

키리노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은 장개석은,³⁴⁾ 또 다른 파트너인 이승만과 더욱 긴밀한 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였다. 장개석이 한국방문 의사를 직접적으로 이승만에게 전달한 것은 키리노와의 두 번째 회담 직후였다. 장개석은 키리노의 동의를 얻어 “‘반공연맹’ 조직 문제를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고 싶다”는 전보를 이승만에게 발송했다.³⁵⁾

32) 「王世杰呈蔣中正資助李承晩」, 1947.12.19, 『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136.

33) 張其昀, 『菲韓紀行』, 9-12쪽.

34) 키리노와의 회담 과정과 주된 논의사항 등은 김영신, 「蔣介石의 ‘원동연맹’ 결성 구상과 좌절」, 『역사문화연구』 69집, 2019, 173-204쪽 참조.

35) 「蔣中正電李承晩」, 1949.7.11, 『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003.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널리 알려진 이승만 역시 ‘연맹’에 지대한 관심이 있음을 표시하였고, 한국정부는 정식으로 장개석 방한을 요청하는 照會를 제출하였다.³⁶⁾ 이와는 별도로 이승만은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만나 문제를 논의하자”는 답전을 장개석에게 보내었다.³⁷⁾ 장개석은 8월중 ‘개인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주한총영사관에 전하고 구체적인 일정 등을 한국당국과 협의하도록 지시하였다.³⁸⁾

장개석의 방한을 위한 준비는 초대 주한대사 소육린이 담당하였다. 7월 25일 소육린이 한국에 도착한 당일, 이승만은 장개석이 방한하기로 했음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³⁹⁾ 7월 28일 國書와 장개석의 서한을 이승만에게 제출한 소육린은 연일 방한 일정과 회담 장소를 정하는 문제로 이승만의 부름을 받았다.

한국 방면과 교통편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기 전, 장개석은 이미 방한 시 해군 함정을 이용하고자 준비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되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다.⁴⁰⁾ 이승만은 안전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鎭海를 회의 장소로 강력히 추천했다.⁴¹⁾ 소육린을 통해 이승만의 의사를 전달받은 장개석의 최종적인 재가에 따라 회의 장소는 진해로 확정되었다.

회의 장소가 정해지자 방한 일자를 정하기 위한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회담이 성사되기를 원한 장개석은 8월 3일 방한하기를 희망하였다.⁴²⁾ 이승만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8월 5일

36) 「陳質平電外交部」第265號, 1949.7.17, 『中菲韓發起防共同盟案』.

37) 「劉馭萬電葉公超」, 1949.7.19, 『蔣總統訪韓』, 典藏號: 002-020400-00034-005.

38) 「蔣中正電許紹昌」, 1949.7.19, 『蔣總統訪韓』, 典藏號: 002-020400-00034-006.

39) 「邵毓麟電外交部」第1號, 1949.7.26, 『中菲韓發起防共同盟案』.

40) 「桂永清呈蔣中正」, 1949.7.25, 『蔣總統訪韓』, 典藏號: 002-020400-00034-009.

41) 邵毓麟, 『使韓回憶錄』, 113쪽.

42)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九冊, 334쪽.

혹은 6일 진해에 도착하기를 희망하였다. 결국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방한일은 8월 6일로 정해졌다.

8월 6일 오후 장개석은 진해비행장에 도착하여 사전에 준비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장개석은 한국의 독립 실현이야말로 자신의 가장 큰 바람이었음을 강조하며, 방한의 목적은 중·한 두 나라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원동 각국이 반공연맹을 조직하는 문제를 두고 이승만 대통령과 깊이 논의하기 위해서임을 강조하였다.⁴³⁾

이승만 역시 성명을 통해 “서태평양 연안 반공국가들이 동참하는 ‘연맹’ 조직을 위해 쌍방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할 것”임을 밝혔다.⁴⁴⁾ 두 사람의 성명은 공히 진해회담의 기본적인 임무와 목적이 원동연맹 결성 가능성을 타진하고 실현의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특히 이승만은 국제사회의 평화실현을 목적으로 최근 일부 유엔회원국이 공동으로 체결한 지역성 공약을 언급하였다. 이는 이승만이 구상하고 있는 ‘연맹’의 모범을 북대서양조약으로 삼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8월 7일 오전 10시 정식회의가 시작되었다. 2시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쌍방은 순조롭게 협의에 도달하였다. 정식회담은 이 한 차례에 불과하였다. 그렇지만 연맹 결성을 추진하자는데 뜻을 같이했기에 이런 뜻을 담은 「연합성명」 발표에는 이견이 없었다. 8월 8일 오전 진해회담의 성과를 정리하여 장개석과 이승만이 공동 서명한 연합성명이 발표되었다.⁴⁵⁾

「연합성명」은 전일 회담에서 논의되고 협의를 달성한 사항들을 정리

43) 「蔣中正發表抵韓聲明」, 1949.8.6, 『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026.

44) 「韓李承晚發表蔣中正抵韓聲明」, 1949.8.6, 『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027.

45) 「蔣中正與李承晚共同發表聯合聲明」, 1949.8.8, 『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030.

하여 서면으로 발표한 것이었다. 핵심은 중·한 두 나라 영수가 반공의 태도를 명확히 하고 국제공산주의의 위협에 맞서 개별적으로 대항하는 한편으로 공동 반공의 길을 걷기로 약속한 것이었다. 이는 표면적으로 연맹조직을 위한 논의가 진실보하였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연합성명의 발표로 인해 애매한 국제환경 속에서 반공을 표방한 연맹조직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과 난도는 더욱 제고되었다.

진해회담은 반공에 대한 중·한 두 나라의 뜻이 같고, 반공의 입장을 지닌 태평양연안 국가, 특히 원동 각국이 동참하는 연맹체 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었다. 다만 바람대로 원동 각국이 참가하는 반공을 표방한 연맹체가 제대로 결성될 수 있을지는 두 사람의 의지나 노력보다도 국제사회의 반응과 관심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 장개석과 이승만은 너무 낙관적이었던 탓에 관련 각국과의 접촉과 설득을 소홀히 하였다.⁴⁶⁾

진해회담의 주제는 연맹 결성 문제에 한정했지만, 장개석은 다른 기회를 통해 경제협작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조속한 실현을 희망하였다. 정식회담이 끝난 날 저녁 만찬 치사에서 장개석은 通商, 공업기술 방면에서의 상호협작, 해·공교통망 확대 등 양국의 경제적 관계와 향후 협작방향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⁴⁷⁾ 특히 “생산, 소비, 분배, 운수 등 방면에서의 협조와 조화”를 강조하였다.⁴⁸⁾ 당시 장개석의 제안과 필요성의 강조가 후일 두 나라 간에 활발히 전개된 경제교류의 단초로 작용하였다는

46) 장개석은 동남아 각국과의 접촉은 필리핀에 일임하고, 중국은 연맹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권유하기 위해 따로 관련국가에 사람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蔣中正電陳質平轉告季里諾」, 1949.7.31, 『蔣總統訪菲』, 典藏號:002-020400-00033-032.

47) 邵毓麟, 『使韓回憶錄』, 117-120쪽.

48) 「蔣中正演說在韓國發表演講詞」, 1949.8.7, 『蔣總統訪韓』, 典藏號:002-020400-00034-028.

점에서 진해회담의 또 다른 의미가 높히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진해회담 후 주목되는 동향 가운데 하나는 중·한 간에 무기원조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도착 성명, 이승만과의 정식회담, 이승만 부부가 베푼 만찬에서의 치사 등 여러 차례 공개적인 언론에서 장개석은 단 한 차례도 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또 진해회담에서는 군사 방면에서의 합작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의제로 삼을 의향이 없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진해회담이 마무리 된 직후, 중·한 간에 무기원조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⁴⁹⁾

국공내전의 형세 변화로 인한 중국의 급박한 사정, 미국의 부정적 의향 등을 고려한 장개석은 무기원조 문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하였다. 시간을 끄는 듯한 장개석의 태도에 다급해진 이승만은 소육린을 불러 긴급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첫째는 무기원조를 논의하기 위해 사람을 대만에 파견하겠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무기원조 대가로 한국의 특산물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⁵⁰⁾

내부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한 것은 분명했지만, 중국도 이승만의 무기원조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는 없었다. 한국이 중국에 무기원조를 요청한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군사역량 강화는 연합 반공전쟁이라는 현실적 방면에서도 극히 중대한 의의를 갖는 문제였다. 다만 무기원조를 실현시키기에 중국의 사정은 너무도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무기원조 외에도 합동 군사훈련, 중공에 대한 해상 봉쇄, 적후공작 등 군사호조는 이후로도 중·한 간에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⁵¹⁾

49) 「邵毓麟電蔣中正韓擬派崔容德金貞烈往臺」, 1949.8.17, 『蔣總統訪韓』, 典藏號: 002-020400-00034-038.

50) 「邵毓麟電蔣中正請派人携訓令前來指示對韓援借武器事以便遵行」, 1949.9.2, 『蔣總統訪韓』, 典藏號: 002-020400-00034-045.

IV. 臺北 : 아시아민족반공연맹(APACL) 조직 육성

1950년 여름 국제공산집단은 두 가지 대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나는 7월 중공군의 대만 침공이고, 다른 하나는 8월경 북한이 남한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당시 대만과 남한은 모두 미국의 국방경제선 밖에 있어 공산집단의 계획이 순조롭게 성공할 가능성이 다분하였다.⁵²⁾ 그러나 6월 25일 한국전쟁이 먼저 발생하면서 대만과 한국의 역사는 다른 운명을 맞게 되었다.⁵³⁾

한국전쟁 발발 당일 이승만에게 보낸 전보에서 장개석은 “북한의 도발은 소련의 음모와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전쟁의 배후로 소련을 지목하고, 한국의 상황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시하였다.⁵⁴⁾ 동시에 주미대사 고유균에게는 유엔주재 중국대표 蔣廷黻과 협동으로 속히 안보리 긴급회의를 열어 한국문제를 논의하도록 지시하였다.⁵⁵⁾

6월 27일 유엔 안보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한국에 필요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⁵⁶⁾ 유엔의 결의사항을 보고받은 장개석은 당일 저녁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육군 3개 사단과 전투기 20대를 한국에 파견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⁵⁷⁾ 물론 이는 대

51) 「邵毓麟電蔣中正中韓軍事互助等問題」, 1949.10.14, 『蔣總統訪韓』, 典藏號: 002-020400-00034-051.

52) 梁敬鎔, 「韓戰爆發之謎與中共參加韓戰之秘密」, 『中美關係論文集』, 聯經出版事業公司, 1982, 270쪽.

53) 宋繼和·羅寶成, 「論抗美援朝戰爭的正義性-兼評朝鮮戰爭對臺灣問題的影響」, 『電子科技大學學報(社科版)』, 2010, 70-74쪽.

54)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9, 181쪽.

55) 顧維鈞, 『顧維鈞回憶錄』第八分冊, 中華書局, 1989, 6쪽.

56) 「賴伊電外交部」, 1950.6.27, 蔣中正總統文物, 『對韓國外交(三)』, 典藏號: 002-080106-00070-001.

만의 내부적 결정이었을 뿐, 실제 파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었다.

7월 1일 미국은 “파병은 대만의 방위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비망록을 제출하여 파병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⁵⁸⁾ 장개석은 1950년 11월 초 중국인민해방군의 한국전쟁 참전 이후, 1952년 10월 태평양함대사령관 래드포드의 요청이 있는 직후 등 몇 차례 파병을 깊이 고려하였으나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한국전쟁이 교착상태에 접어든지 오래인 1953년 초 이승만의 대만 방문이 처음 논의되었다. 1월 18일 한국 외무장관 曹正煥은 이승만의 명을 받아 주한대사 王東原에게 이승만이 장개석과 회동하고 싶어한다는 뜻을 전하였다. 왕동원은 이승만의 대만 방문이 중·한 우의관계와 태평양지역 반공진영의 강화에 중대한 의의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첨부하여 장개석에게 보고하였다.⁵⁹⁾

장개석은 총통부비서장 王世杰, 외교부장 葉公超와 이승만 방문 문제를 논의하였다. 왕과 섭은 이승만의 방문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었다.⁶⁰⁾ 이는 아마도 미국, 특히 국무원으로부터 ‘환영 받지 못하는’ 인물인 이승만의 방문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나온 의견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개석은 이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반응이라며, 두 나라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하여 정부차원에서 환영의 뜻을 한국에 전달하도록 결정하였다.

1월 이후 한동안 이승만의 방문 문제는 양국에서 모두 별다른 논의와

57)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9, 184쪽.

58) 「顧維鈞電蔣中正」, 1949.7.1, 『對韓國外交(三)』, 典藏號:002-080106-00070-003.

59) 「王東原電蔣中正」, 1953.1.18, 『對韓國外交(二)』, 典藏號:002-080106-00069-009.

60)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十冊, 149쪽.

진전이 없었다. 이는 중·한 두 나라 모두 당면한 문제들이 산적하여 방문 문제를 진일보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월 20일 아이젠하워의 취임과 2월 2일 ‘대만중립화’ 해제, 2월 25일 장개석의 「중소우호동맹조약」 및 그 부대조건 폐지 지시, 3월 5일 스탈린 사망, 4월 10일 미국무성이 돌연 한국문제 해결을 위해 ‘대만 신탁통치 및 한국 分立’을 주창하는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장개석은 이에 대응하느라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5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김홍일 대사는 장개석을 만나 정식으로 이승만의 대만방문 문제를 제기하였다.⁶¹⁾ 장개석은 이승만의 방문이 한국의 정세변화에 유익하다고 판단해 환영한다는 뜻을 표시하였으나, 태평양함대 사령관 레드포드와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이승만과의 회동일자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이승만의 방문이 재차 정식거론되자 장개석은 이승만의 방문이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만에 미치는 이해는 어떤 것인지, 방문 사실을 사전에 미국에 통보할 것인지, 공동선언의 내용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고민하였다.

한국전쟁 휴전 뒤 원동지구 반공국가의 ‘공동반공’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장개석은 중(대만)·일·한 3국이 반공 군사협작을 통해 공산세력의 원동침략을 막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 생각하였다.⁶²⁾ 다만 한국은 여전히 일본을 두려워하여 결코 일본과 ‘結盟’하지 않으려 들 것이므로, 우선 중·한, 중·일 간에 동맹을 체결하여 3국연합 미체결의 결함을 메우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한국과의 동맹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물론 장개석은 중·한·일 삼국의 동맹에는 미국이 참가하고 주도해서 반공 진영을 영도하는 것이 보다 실제적이고 진행도 쉬울 것이라는 생각을 갖

61)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十冊, 192쪽.

62) 「王世杰呈蔣中正謹就與美國參議員諾蘭一般會談之結論」, 蔣經國總統文物, 『外交—蔣中正接見美韓等代表談話參考資料』, 典藏號: 005-010205-00100-014.

고 있었다.

1953년 10월 20일, 장개석은 주일대사 董顯光과 王世杰을 불러 한국과의 동맹체결 협상에 속도를 내도록 하였다. 논의 결과 동헌광이 비공식 특사 신분으로 한국에 가 직접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이승만의 의향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진행방안을 정하기로 하였다.⁶³⁾ 장개석이 한국과의 동맹체결을 서두른 것은 11월 초로 예정된 미국부통령 닉슨의 방문이 영향을 미쳤다. 장개석은 닉슨이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동남아 각국을 방문하고 대만을 거쳐 한국으로 향하는 일정을 마련한 것은 ‘태평양연맹’을 축성하려는 것으로 보았다.⁶⁴⁾

한국으로 향하기 전 동헌광은 왕세걸이 기초한 「太平洋互助公約」 초안 영문본을 건네받았다. 이 초안은 이미 장개석에게 보고되어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 것이었다. 동헌광이 받은 지령은 이승만을 만나 먼저 要旨만을 설명하고 반응이 절대적으로 양호하기 전까지는 全文을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었다.⁶⁵⁾ 이 초안은 직접적으로 「중한동맹」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동헌광을 통해 이승만에게 내용을 알리고자 했던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장개석은 서태평양 연안 반공국가들이 참가하는 구역협정 혹은 기구의 출범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았다. 중·한 두 나라가 모두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받은 상황에서 기타 국가들이 중·한이 동참하는 연맹체 참여를 꺼려할 것이 분명하였다. 연맹체의 출현을 앞당기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중·한 두 나라가 먼저 동맹을 체결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협정이 발효된 뒤 서태평양 각국의 참가를 유도하는 길 뿐이었다. 장개석은 「중한동맹」

63) 『蔣中正先生年譜長編』 第十冊, 259쪽.

64)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12, 222쪽.

65) 「王世杰呈蔣中正太平洋互助公約」, 1953.11.2, 『對韓國外交(二)』, 典藏號: 002-080106-00069-011.

을 먼저 추진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각국의 참가를 유도하는 것이 당시 동아시아 각국이 처한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이지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장개석의 바람과는 달리 이승만은 「중한동맹」 체결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대신 장개석이 한국을 방문하여 양자가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상호 우호관계를 확인하자고 제안하였다. 장개석은 이는 이승만이 자신의 지위를 격상시켜 미국의 중시를 받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동맹체결과 같은 실제적 문제에 대한 협조와 성의는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위상 제고에만 신경 쓰는 듯한 이승만의 행태에 대해 장개석은 이전부터 불만이 적지 않았다. 결국 이승만에 대한 불만은 “동방민족 부흥의 대계를 함께 논하고 일을 추진할 성의를 가진 인물을 찾아볼 수 없음”을 개탄하는 식으로 표현되었다.⁶⁶⁾ 장개석은 이승만이 동맹을 맺자는 제안에 찬동하지 않은 것은, 만일 동맹이 맺어지면 미국이 이를 핑계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을까 우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⁶⁷⁾

뉴질랜드, 호주와 동남아시아 각국을 차례로 방문했던 닉슨이 한국방문에 앞서 11월 8일 대만에 도착했다. 4박 5일의 일정동안 닉슨은 장개석과 세 차례 회담을 가졌다. 두 사람의 대화 주제는 반공대륙, 대만의 군사시설 설비개선, 경제원조 강화, 학술교류 등 다양했고 원동의 반공정세와 관련하여 「중한동맹」 체결문제도 화제에 올랐다.

11월 9일 밤에 열린 3차회담에서 장개석은 「중한동맹」 체결 필요성을 먼저 제기하고 미국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장개석은 한국이 중국과의 결맹을 꺼리는 것은 동맹이 체결되면 미국을 위시하여 연합군이 모두 한

66)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12, 227쪽.

67)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十冊, 265쪽.

국에서 철수할 것을 염려한 탓이라고 보았다. 장개석이 보기에 이승만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서 철군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이 분명하게 「중한동맹」 체결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이승만은 절대 중국과 동맹을 맺으려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였다.⁶⁸⁾ 곧 한국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나서서 「중한동맹」의 축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1953년 11월 18일 장개석은 주한대사 왕동원을 통해 이승만의 대만 방문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⁶⁹⁾ 일정을 조율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승만은 11월 27일 미군에서 제공하는 비행기 편으로 臺北에 도착 장개석과 회동한 뒤 29일 오전 귀국하는 것으로 정해졌다.⁷⁰⁾ 장개석은 이승만이 그간 미뤄오던 대만 방문에 흔쾌히 응한 것은 닉슨의 권유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했다.⁷¹⁾ 장개석은 이승만 방문의 주된 목적은 「연합성명」 발표에 있어 「중한동맹」 체결문제는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했다.

장개석과 이승만은 두 차례 회담을 가졌고, 11월 28일 오후 「연합성명」이 발표되었다. 연합성명 발표에 앞서 개최된 1차회담의 주요 의제는 세 가지였다.

첫째는 「태평양연맹」 조직 과정에서 ‘미국의 영도적 지위’를 명시하고 이를 「연합성명」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공식회담에 앞서 葉

68) 「蔣中正與美國副總統尼克森會談談話紀錄」, 1953.11.9, 蔣經國總統文物, 『外交-蔣中正接見美方代表談話紀錄(十四)』, 典藏號: 005-010205-00076-003.

69) 「蔣中正電王東原」, 1953.11.18, 『籌筆-戡亂時期(二十一)』, 典藏號: 002-010400-00021-065.

70) 「王東原電蔣中正」, 1953.11.23, 『對韓國外交(二)』, 典藏號: 002-080106-00069-012.

71) 닉슨은 11월 12-15일 한국을 방문 이승만과 회동하였다.

公超와 한국외무장관 卞榮泰가 「성명」의 문구를 두고 장시간 토론하였다. 토론 끝에 대체적인 합의점을 찾았으나, 단 한 가지 미국을 명기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⁷²⁾ 두 사람이 마련한 성명문 초안에는 향후 「태평양연맹」의 조직 과정에서 자유세계를 영도할 책임이 미국에게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자고 되어 있었다. 섭공초는 원문대로 발표하자고 주장했다. 이승만은 미국도 아시아지역에서 ‘국제조직’이 하루 속히 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굳이 「성명」에 미국의 참가를 명시하는 것은 마치 미국이 참가하지 않으면 「태평양연맹」이 성립될 수 없는 것처럼 약점을 보일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하였다.⁷³⁾ 회답에 동석했던 宋美齡은 「성명」 중에 미국을 언급하지 않으면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이 연맹체 참가를 꺼릴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에 이승만은 본인도 「성명」 중 미국을 언급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문구에 신경써 ‘연맹’ 조직의 성공여부가 전적으로 미국의 군사·경제적 원조에 달려 있지 않으며, 미국도 ‘연맹’ 조직에 일반적인 책임이 있다는 정도로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미령의 중재의견을 수용하여 「성명」은 ‘자유를 애호하는 국가, 특히 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가 반공연합전선 조직을 바라는 우리에게 도의적, 물질적 지지를 보내주기 바란다’는 선에서 미국이 일정한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였다.⁷⁴⁾

장개석은 오래 전부터 ‘연맹’ 조직에 미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렇기에 미국의 책임을 「성명」에 분명히 적시하

72) 「十一月二十八日葉公超與卞榮泰在臺北賓館談話摘要」, 1953.11.28, 『對韓國外交(二)』, 典藏號:002-080106-00069-015.

73) 「蔣中正與李承晩第一次會談紀錄」(이하 「第一次會談紀錄」으로 약함), 1953. 11.28, 『對韓國外交(二)』, 典藏號:002-080106-00069-014.

74) 「蔣中正與李承晩聯合聲明」, 1953.11.28, 『對韓國外交(二)』, 典藏號:002-080106-00069-013.

자고 제안한 것이다. 1949년 여름, 장개석은 필리핀과 한국을 오가며 ‘반공연맹’ 조직을 위해 애썼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군사적 성격’을 띤 안전보장기구의 출현이 공산집단을 자극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와 무관심, 필리핀대통령 키리노의 ‘배신’으로 조직은 출현하지 못했다.⁷⁵⁾

한국전쟁이 휴전된 뒤인 1953년 말의 상황은 국공내전이 한창이던 1949년과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장개석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반공조직이 출현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 성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성명」 가운데 미국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고자 제안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는 ‘반공포로’를 「성명」 중에 언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는 이승만이 가장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사안이었다. 이승만이 「성명」에 반공포로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는 것에 이견을 가진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반공포로들은 당시 한국에 수용되어 있었고, 모두가 인민해방군으로 참전했던 중국인이었다. 곧 이 문제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만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반공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에 반공포로가 언급된다면 기타 국가들이 이는 두 나라의 ‘私慾’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⁷⁶⁾ 한 마디로 아시아 기타 국가들을 향한 일반적 호소의 내용을 담은 「성명」에서 한·중 두 나라와만 관련이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승만의 의견에 동조한 변영태는 반공포로 문제를 꼭 언급하고 싶다면 별도의 단독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송미령과 섭공초는 반공포로 문제가 한·중 두 나라의 ‘사욕’에 불과하

75) 王恩美,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의 주도권을 둘러싼 한국과 중화민국의 갈등과 대립 (1953-1956)」, 170쪽.

76) 「第一次會談紀錄」.

다는 이승만의 의견에 찬동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자유를 갈망하는 것은 인류의 최고가치이며, 반공의사들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주의와 원칙을 위해 분투해온 한·중 두 나라 영수의 신념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는 설득은 결국 이승만을 움직였다. 이승만은 장개석이 중요하다 하고 여긴다면 「성명」 가운데 반공의사를 언급하는 것에 개의치 않겠다고 변영태에게 수정을 지시했다. 그 결과 「연합성명」에는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한 전쟁포로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직책을 다할 것’이라는,⁷⁷⁾ 이전에 비해 한결 온화한 표현이 들어가게 되었다.

세 번째는 「성명」을 두 나라 영수의 이름으로 먼저 발표할 것인가, 태국과 필리핀 등 아시아 반공국가와 연계한 뒤 발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다. 이승만은 한·중 두 나라만 먼저 「성명」을 발표할 것인가, 아니면 외교적 경로를 통해 ‘연맹’참가를 원하는 타국의 의견을 수렴한 뒤 발표할 것인가 하는 「성명」 발표시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가 염려하는 것은 한·중 두 나라만 먼저 성명을 발표하면 마치 두 나라의 주장을 앞세우고 타국이 이를 접수하도록 강박하는 듯한 모양새가 될 수 있고, 「성명」에서 강조할 ‘반공을 위한 일치단결’이 한·중 두 나라만의 문제라고 여타 아시아 국가들이 호응하지 않을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다.⁷⁸⁾ 이에 대해 장개석은 중·한 두 나라 원수 이름으로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 단계로 기타 국가의 참가를 이끌어내자고 주장하였다. 장개석은 이승만이 먼길을 왔는데 「성명」 발표도 미룬다면 이번 회담이 아무런 결실도 없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다며 이승만을 설득하였고, 이승만도 결국 이에 동의하였다.

77) 주 74)와 같은 자료.

78) 「第一次會談紀錄」.

이승만이 특별히 관심을 가진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장래 조직될 ‘연맹’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반공국가의 연맹체적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인데 인도나 기타 ‘비반공국가’도 초청할 것인지, 만일 비반공국가들이 참가를 원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문제였다. 이는 일본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고, 이승만은 자신은 비반공국가의 ‘연맹’ 참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승만은 특별히 일본을 지목하며, 일본에서는 공산당이 여전히 합법적 정당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소련과 일본정부의 왕래도 빈번하고, 중공과 무역전개도 준비하고 있어 반공국가로 볼 수 없다며 일본의 반공단체와 협력은 가능하지만 일본정부와 ‘연맹’ 조직을 협의하거나 일본의 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⁷⁹⁾ 당시 이미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였던 장개석의 입장이 난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제1차회담에서 장개석은 일본문제는 「성명」에서 다룰 필요가 없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시 이승만과 토론할 것이라 하였고, 이승만도 「성명」중 일본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는 데 동의하였다.⁸⁰⁾ 다음날 열린 제2차회담에서 장개석은 이 문제를 먼저 언급했다. 장개석은 일본은 결코 중·한 두 나라가 동참하는 ‘집단’에 가입하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다만 일본도 아시아에 속하는 나라이니 ‘연맹’ 조직 의향을 알려야 마땅하며, 만일 일본이 한사코 ‘연맹’에 가입하려든다면 당연히 공산당을 불법단체로 공포하게 하는 등 조건을 달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장개석은 일본이 절대 공산당을 불법단체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맹’ 참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승만을 달랬다.⁸¹⁾

79) 「第一次會談紀錄」.

80) 「第一次會談紀錄」.

81) 「第二次會談紀錄」.

제2차회담에서는 '연맹' 조직을 누가 앞장서 추진할 것인가 하는 '창도 중심' 인물을 놓고 의견교환이 있었다. 「태평양연맹」 조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장개석은 향후 '亞洲反共陣線'의 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 나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승만이 이 책임을 맡아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면서도 섭공초의 말을 빌려 전날 외무장관끼리의 사전 준비회의에서 변영태가 새로 필리핀대통령에 당선된 막사이사이를 추천했다는데 이승만의 의견은 어떤지 물었다.⁸²⁾

이승만은 자신은 결코 '중심'이 될 뜻이 없음을 밝히고, 반공진선에는 '영수'가 필요치 않으며, 누가 누구를 지휘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피력하였다. 곧 민주적인 방식으로 '연맹' 조직에 참가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책임과 권한을 나눠가져야지 '연맹'이 최대의 효용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을 피력하였다. 이승만이 '창도중심'이 되는 것을 꺼려하자 최종적으로 장개석은 막사이사이를 공동창도인으로 추대한 뒤 중·한 두 나라 영수가 동참하는 형식이 어떻겠느냐 제안하여 이승만의 동의를 얻었다.⁸³⁾

장개석은 이승만과 양국의 군사합작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이승만이 두 나라가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꺼려하여 정식회담 시 의도적으로 군사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⁸⁴⁾ 29일 이승만을 배웅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장개석은 일전 닉슨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나누었던 대화의 일부를 언급했다.

11월 9일 회담에서 장개석은 닉슨에게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최

82) 「十一月二十八日葉公超與卞榮泰在臺北賓館談話摘要」.

83) 「第二次會談紀錄」.

84) 1953년 10월 23일 卞榮泰는 王東原에게 양국의 '군사동맹'을 먼저 제안하였다. 그러나 10월 29일 董顯光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승만은 '군사동맹'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상의 방책은 중·한 두 나라가 군사상 연합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건의하였다.⁸⁵⁾ 곧 대만군이 대륙으로 진공할 시 남한군도 동시에 북한으로 진공하는 것이라는 건의였다. 장개석은 이승만에게 혹 나중에 미국 측에서 두 사람의 회담에서 군사문제를 두고 원칙적인 논의가 있었느냐고 물어오거든 본인이 닉슨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자신(이승만)의 뜻도 그러하다고 답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다. 영접결에 이승만은 각하(장개석)의 의견에 깊이 찬동하며, 그렇게 답하겠노라고 약속하였다.⁸⁶⁾

국공내전기 진해를 방문해서도 장개석은 한국과의 ‘군사협작’ 가능성을 타진했고, 이승만도 대만이 소형무기를 지원해주기를 바랐다. 단 한 차례도 양국의 ‘군사협작’이 현실화된 경우는 없었지만, 장개석과 이승만은 구두상으로나마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고 반공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군사적 협작을 약속하였던 것이다.

V. 맺음말

上海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기는 하였으나, 이후 해방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까닭에 이승만은 여타 임시정부 요인들과는 달리 장개석과 조우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 그가 미국에서 반탁운동을 전개하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장개석과 회동할 기회를 가졌다. 이때의 회동이 두 사람 간 세 차례 회동의 첫 번째 경우였고, 유일하게 중국대륙에서 가진 만남이었다.

85) 「蔣中正與美國副總統尼克森會談談話紀錄」.

86)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十冊, 274쪽.

상해에서의 첫 번째 만남이 있기 전부터 이승만은 환국하는 김구에게 장개석이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20만 달러에 주목하고, 이 돈을 자신 명의로 예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결국 20만 달러는 손에 넣지 못했지만, 귀국 후 여러 경로를 통해 ‘활동자금’ 지원을 장개석에게 요청하였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었다. 해방 정국에서 이승만이 활발한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초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데는 장개석이 제공한 ‘자금’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부분이다.

한국광복군 성립 승인, 임시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 등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장개석은 한중관계에서 항상 지원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국공내전이 가열화 되어 중국적화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 맞닥트리자 반공국가의 세력결집이라는 목표를 위해 신생독립국인 한국의 지지와 협조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지원자의 입장에서 지지를 요청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반공연맹 조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鎭海를 찾으면서 장개석과 이승만의 두 번째 회동이 성사되었다. 진해회담의 주요 의제는 ‘태평양연맹’ 조직에 있었다. 진해회담은 반공에 대한 중·한 두 나라의 뜻이 같고, 반공의 입장을 지닌 태평양연안 국가, 특히 원동 각국이 동참하는 연맹체 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었다. 다만 두 사람의 바람과는 달리 반공연맹체 조직이 즉각 실현되지는 못하였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한국전쟁 휴전 후 또 한 차례 만남을 갖게 되었다.

장개석과의 회동 전까지도 이승만은 원동연맹이 쉽게 조직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매우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듯하다. 이승만은 ‘연맹’ 조직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장개석도 이승만까지 합세한다면 충분히 미국을 설득시켜 연맹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

나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구역성 반공조직의 출현이 공산집단을 자극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와 반대로 인해 두 사람의 기대와 바람은 즉각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한국전쟁은 남·북한 간의 싸움이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전쟁이기도 하였다. 공히 공산진영의 '침략'을 경험한 장개석과 이승만은 공산세력의 확산에 맞서는 반공연맹체 조직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아시아 반공국가가 연합체를 조직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미국도 한국전쟁 후 태도를 바꾸었다. 과거 한 차례 실패를 거울삼아 장개석과 이승만은 「태평양연맹」 조직을 더욱 구체화시키기 위해 또 한 차례 회동하였다. 두 사람의 세 번째 만남은 아시아민족반공연맹(APACL) 발족을 축성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22.11.05. 투고 / 2022.12.06. 심사완료 / 2022.12.10. 게재확정)

[Abstract]

Chiang Kai-shek and Rhee Syng-man-The Origin and Significance of the Three Meetings

Kim, Young-sin

This article examines the origins of the three meetings between Chiang Kai-shek and Rhee Syng-man, two representative political figures of modern China and Korea, and the significance of each meeting. The two men's political position was special to dismiss the three encounters as mere 'communion' at the individual level.

The two first met in Shanghai. Although he w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hee was not acquainted with Chiang because he had been active in the United States for a long time. At this time, since Rhee had not yet been elected president, political issues were not discussed in depth at the first meeting. Before and after the first meeting, Rhee persistently requested support for 'activities funds', and there was actually support from Chiang.

The second meeting in the Jinhae was the result of reflecting the change in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t the time, and the meeting was held at the active request of Chiang. At a time when the Civil War was going very unfavorably, Chiang promoted the organization of an alliance of anti-communist countries along the western Pacific coast to counter the spread of communist forces. To this end, he first visited the Philippines and discussed a joint venture with President Kirino, hoping

for a meeting with Rhee to promote a joint venture with Korea. As a result of the Jinhae summit, Chiang and Rhee issued a joint statement stating that they agreed to the organization of the anti-communist alliance. During the talks, Chiang emphasized the necessity of China-Korea military cooperation and economic exchange, and his proposal led to the result of active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the 1950s.

A few months after the Korean War armistice, the third meeting between the two was held in Taipei. The leaders of both countries, both of whom were invaded by communist forces, fully agreed with the organization of a regional anti-communist alliance in which anti-communist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participated. Using the failures of the past as a mirror, the two discussed specific plans for the organization of an alliance, and as a result, the Asian People's Anti-Communist League was officially launched the following year. The third meeting has a special meaning in that it promoted the establishment of an anti-communist federation in which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participated in the early days of the Cold War.

□ Keyword

Chiang Kai-shek, Rhee Syng-man, Korean War, Anti-Communist POWs, military cooperation, Pacific League

[참고문헌]

1. 자료

蔣經國總統文物, 『外交-蔣中正接見美方代表談話紀錄(十四)』, 國史館所藏.

蔣經國總統文物, 『外交-蔣中正接見美韓等代表談話參考資料』, 國史館所藏.

蔣中正總統文物, 『籌筆-戡亂時期(二十一)』, 國史館所藏.

蔣中正總統文物, 『對美外交』, 國史館所藏.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 對韓菲越關係』, 國史館所藏.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 蔣總統引退與後方布置(上)』, 國史館所藏.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 蔣總統訪菲(二)』, 國史館所藏.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 蔣總統訪韓(二, 三)』, 國史館所藏.

『中菲韓發起防共同盟案』,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所藏.

秦孝儀 主編, 『先總統蔣公思想言論總集』卷21·32·38, 中國國民黨黨史委員會, 1984.

2. 단행본

顧維鈞, 『顧維鈞回憶錄』第八分冊, 中華書局, 1989.

唐振楚 編, 『總裁辦公室工作紀要』, 中國國民黨, 1952.

董顯光, 『蔣總統傳』, 中華大典編印會, 1967.

邵毓麟, 『使韓回憶錄』, 傳記文學出版社, 1980.

梁敬鎔, 『開羅會議』, 臺灣商務印書館, 1973.

呂芳上 主編,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八·九·十冊, 國史館, 2015.

劉維開, 『蔣中正的一九四九-從下野到復行視事』, 時英出版社, 2009.

張其昀, 『菲韓紀行』, 正中書局, 1949.

蔣永敬·劉維開, 『蔣介石與國共和戰(1945-1949)』, 臺灣商務印書館, 2011.

秦孝儀 總編纂,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財團法人中正文教基金會, 2002.

3. 논문

김명섭·김주희, 「20세기 초 동북아 반일(反日) 민족지도자의 반공(反共): 이 승만과 장개석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4(2), 2013.

김영신, 「蔣介石의 ‘원동연맹’ 결성 구상과 좌절」, 『역사문화연구』 69, 2019.

김영신, 「1949년 蔣介石 訪韓의 유래와 의의」, 『전북사학』 56, 2019

王恩美,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의 주도권을 둘러싼 한국과 중화민국의 갈등과 대립(1953-1956)」, 『아세아연구』 제56권 3호, 2013.

정형아, 「6·25전쟁발발 전후 장제스의 ‘반공대륙(反攻大陸)’ 구상」, 『중국 근현대사연구』 87, 2020.

宋繼和·羅寶成, 「論抗美援朝戰爭的正義性—兼評朝鮮戰爭對臺灣問題的影嚮」, 『電子科技大學學報(社科版)』, 2010.

呂芳上, 「總裁的‘首腦外交’: 1949年蔣中正出訪菲韓」, 陳立文 主編, 『蔣中正與民國外交II』, 國立中正紀念堂管理處, 2013.

林桶法, 「從溪口到臺北: 第三次下野期間蔣介石的抉擇」, 『國史館學術集刊』 13, 2007.